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인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대림절 제4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7.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대림절의 초를 네 개째 밝혔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인 동지 절기에 우리는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냉랭함과 흉포함이 우리들의 가난한 일상을 더욱 힘겹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성난 목소리로 말하는 우리들입니다. 새벽이 밝아 오기를 기다리던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거짓과 위선과 이기심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십시오. 소유욕과 권력욕에서 벗어나 주님을 모신 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울고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지금 외로운 이들의 벗이 되어주는 일에 게으르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골1:12-14	인도자
♠ 교 독 문	56. 대림절(2)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오선영 선생 II. 김재흥 목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112.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다함께
성경봉독	I. 잠16:9,19:21	인도자
	II. 눅2:8-14	안홍숙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주님 말씀하시면	최인환 전도사
	II. 아기로 오신 하나님	김준우 목 사
거듭기도		다함께

- 헌신의 찬송 488.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다함께
- 헌금봉헌<찬양 : 조병무 장로>..... 다함께
-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큰 빛을 마음에 품었으니 작은 빛이라도 밝혀 세상을 환하게 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사랑과 평화의 길을 단호히 택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불화와 갈등이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가난한 꿈조차 유린하는 세상이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바칩니다. 손과 발을 바칩니다.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성탄 축제	성서의 평화(14)/김기석 목사
인도 : 김재흥 목사	기도 : 조항범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황경순 집사 조병무 장로	인도자 조관행 집사

12월	영접위원	한상익	김훈동	최철수	안정숙	정영선	유혜경
	헌금위원	윤석철	이호원	윤주원	조병주	박효선	강순배

성탄기도

오 주여, 주의 길을 수용하기가 어렵기 그지없나이다. 주는 집을 멀리 떠나 태어난 조그맣고 힘없는 아기로 제게 오십니다. 주는 저를 위해 당신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십니다. 주는 저를 위해 당신의 백성에게 배척당하시고, 당신의 벗들에게 오해받으시고, 당신의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느낌 속에서, 성문 밖으로 끌려나와 범죄자로 죽으십니다.

주의 성탄을 경축하고자 준비중인 저는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평안을 맛보고자 노력하고 있사오며, 끊임없이 연습하는 소외감과 고독감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나이다. 그러면서도 제 애절한 고적감이 간간이 밀려드는 귀속감보다 저를 주님과 더 가까이 결합시켜주고 있는 것인지 미심쩍기만 합니다. 제가 주님의 성탄을 경축해야 할 자리는 어디이옵니까? 아늑한 가정입니까, 낯선 집입니까? 반가워하는 친구들 속입니까, 낯모르는 나그네들 사이입니까? 안정감을 누리는 자리입니까, 고독감에 젖는 자리입니까?

주님과 가장 가까운 이 체험들로부터 멀리 달아나야 할 까닭은 없사옵나이다. 주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듯이 저 또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 때마다 저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주를 더욱 힘차게 끌어안고 주의 기쁨과 평화를 더욱더 온전하게 맛보곤 합니다.

오소서 주 예수여, 제가 한없이 가난하다 느끼는 자리에 저와 함께 하소서. 이 자리가 주께서 당신의 구유를 발견하고 빛을 가져오실 자리라 굳게 믿나이다. 오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준비하라

토마 신부가 설교를 통해 부단히 강조하는 바에 따르면, 성탄대축일 직전의 나날들은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나날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태어나고자 하시지만, 이를 위해 우리는 혼연하고 수용력 있는 자세로 마음을 열어 그분을 진실로 반갑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대림절, 특히 성탄대축일 직

전의 며칠은 바로 이를 위해 있는 것이다.

나는 거의 매일처럼 나 자신에게 말하곤 한다.

‘오늘은 그냥 기도하고, 그냥 기대 속에 기다리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내뱉어야지.’

그럼에도 하루는 언제나 내 주의를 끄는 수많은 사소한 일들로 소진되어 버리곤 한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으레 화나고 혼란스럽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맛보게 마련이다.

오늘은 유난히 그러했다. 아침만 해도 오늘은 완전히 자유로워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저녁이 된 지금은 시간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성탄대축일을 위한 외형적인 일들—선물이며 장식, 짧은 방문—이 시간을 빼앗아버렸고, 그래서 하루는 두터진 도량물처럼 누수되고 말았다. 화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앙드레 신부의 말을 잊지 않기가 무척이나 힘든 것 같다.

나는 곧잘 생각하곤 한다.

‘일생은 하루나 같다. 너무도 빨리 지나가고 만다. 만일 하루하루를 분별없이 보낸다면 어떻게 일생을 소중히 다룰 수 있겠는가?’

내가 화급한 일들을 잠시 밀쳐두고 진실로 중요한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결국 깊고 강한 신념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준비하는 일이 성탄 트리를 만드는 일보다 한결 중요하다고 진실로 믿을 때, 하루가 끝나면서 느끼는 나의 불만감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다.

성탄 전야에 이보다 나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으면 좋았으리라. 하지만 경건한 내용보다 진실한 내용을 기록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을 맞이하는 내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분께 내 좌절과 혼란을 바치면서 그것으로 그분이 무엇인가 하시리라 믿어본다. (헨리 뉴엔, <<새벽으로 가는 길>> 중에서)

선한 인간의 삶에서 가장 훌륭한 것들은
보잘것없고,
이름을 내세우지도 않으며,
기억하지 않는
사랑과 친절의 행동들이다.
-- 윌리엄 워즈워스

씨를 뿌리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은 희망 속에서 삽니다.
그는 무슨 일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세속을 넘어선 신뢰와 확신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은 생산을 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것만이 훌륭한 방법은 아니지요.
만약 씨뿌리는 사람이 수확만을 생각한다면,
대지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그 과정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사실 씨를 뿌리는 것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일의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결국으로는 아주 성공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결과는 진정한 보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진정으로 보람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갖고, 집착을 버리고, 기꺼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스태니슬라우스 케네디, <<영혼의 정원>> 중에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춘려 김철수 유영남 한완식 임정자 강인식 김정숙 이선림 박홍엽
 정완수 김재광 김용진 박효선 임 영 정경례 김혜권 박영숙 이유선
 방극숙 김민주 이인웅 김용원 오자영 박상규 왕성환 강순배

월정헌금:

유증희 이재문 황경순 최윤희 김수연 박병구 이광섭 김 극 박석희
 조항미 박준희 이기분 이경남 홍복선 송임회 류건형 이호원 권 순
 윤정화 김현진

감사헌금:

양재성 한상의 정영선 이계선 이소순 왕성환 강순배 전세종 오진훈
 노순옥 유형준 김현미 최윤선 윤주원 김정순 김명순

생일감사헌금: 송양진

100주년 기념 사업 헌금:

한완식 임정자 이재문 최윤희 이선림 (누계- 19,800,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속 회 방 학	속 회 방 학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가버나움	구 명 자	안 홍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라디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예배 후 금년도 마지막 임원회가 있습니다.
2. **성탄행사** : 오늘 오후 집회는 교회학교가 준비한 성탄축제로 모입니다. 기쁨의 축제로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3. **성탄예배** : 성탄예배는 25일(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합니다. 예배 중에 봉헌하는 헌금은 어려운 이웃들과 교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합니다.
4. **대추리 주민들을 위한 성탄예배** : 성탄절(월) 오후 3시에 광화문 감리교 본부 앞에서 '대추리 주민을 위한 성탄절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신천임원교육** : 새롭게 임원으로 세움을 받은 이들은 중구용산지방 교육부가 주관하는 임원교육에 꼭 참석하십시오.
일시 - 28일~29일, 오후 6시 30분~9시
장소 - 상동교회
6. **신청** : 내년부터는 꽃꽂이를 하지 않습니다(화분으로 대신함). 각 가정에서 기념할 날에 예전처럼 헌금을 해주십시오. 그 돈은 캄보디아에 우물을 파서 기증하는 일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7. **신앙실천** : 살아온 시간을 믿음과 감사의 체로 걸러보십시오. 금년의 남은 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십시오.

* 식당 봉사 : 빌립보 속

* 헌화 : 김명순 권사 (어머님 추도)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